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불국사서 추사와의 재회 기다린 초의스님

초의스님은 학림암에서 추사를 처음 만난 후, 첫 만남의 설렘이 식지 않은 듯, 불국사에서 추사와의 재회를 오매불망 기다렸지만 허사가 되고 말았다. 그가 지은 <불국사회고>는 추사를 향한 그의 마음을 집약할 수 있는 시로, 그 정회(情懷)를 이렇게 노래했다.



초의 스님이 추사와의 재회를 기다렸던 불국사 전경

“세상의 불국토보다 만나기 어렵네” 초의, 추사를 그리워하며 읊 읊어

렀던 것, 결국 추사가 초의에게 기별하지 못한 재경주를 떠난 것이라 여겨지니 분병 전후 사정이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헤어 겨우 감영에 온 추사가 불국사를 자신을 찾아오까하여 자하문 밖으로 맑게 갠 하늘을 본다는 대목에선 간절히 추사를 기다리는 초의의 마음이 행간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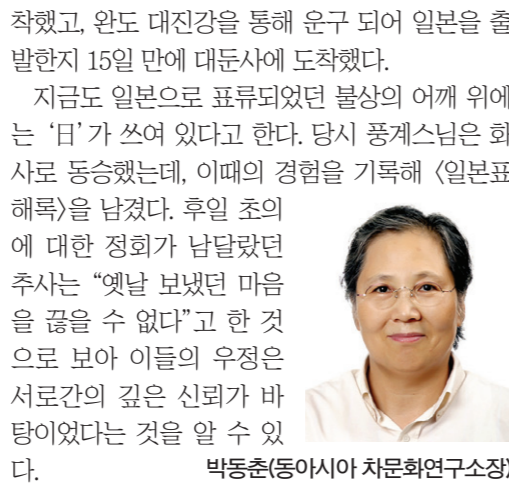
그러나 무슨 연유에선지 추사와의 재회는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이 해 6월, 초의스님은 불국사에서 추사를 기다린 격이고, 아무런 추사는 이미 경주를 떠나 한양에 있었다.

추사의 연보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 해 6월, 추사는 조인영(1782-1850)과 함께 북한산비를 다시 찾아 비문을 조사하고 있었고 하니 초의스님은 이런 사실도 모른 채 불국사에서 추사를 기다

그가 대문사로 거처를 옮겨, 두어 해를 보낸 1811년 봄, 대문사에 큰 불이 났다. 당시 화제는 ‘가리첨사(加利庵佛) 두 사람이 이경팔(9-11세)에 쫓아 도착했는데, 두 명의 권리와 보호하는 이가 불을 들고 창고에 들어갔다’ 불화가 떨어진 줄을 몰랐던 것. 이 화제도 가허부, 천불전, 대장전, 용화당, 팔해당, 적조당, 지장전, 아사전, 향로전 등이 하룻밤 사이에 전소되는 참화를 입었다. 초의의 스승 안호 스님(1758-1820)은 전소된 가림을 다시 중창할 원력을 세우고, 천불전에 모실 천구의 옥불을 기림사에서 조성하고 있었다.

당시 초의는 스승 안호 스님의 허명을 받고 기림사로 내려간 것이다. 실제 기림사에서 조성된 이 옥불은 1817년 11월16일 두 척의 크고 작은 배에 나누어 실고, 뱃길로 운구하다가 큰 배가 풍랑을 만나 일본 장기도까지 표류되었는데, 큰 배에는 인봉 스님과 풍계 스님, 작은 배에는 호의 스님이 동승했다. 오월하에 이 배는 해(1818) 6월17일 일본을 출발하여 11일 만의 풍진 바다에 도착했고, 안도 대장전을 통해 운구 되어 일본을 출발한지 15일 만에 대문사에 도착했다.

지금도 일본으로 표류되었던 불상의 어깨 위에는 ‘卍’가 쓰여 있다고 한다. 당시 풍계스님은 화사에 대한 정회가 남달랐던 추사는 “옛날 보았던 마음을 읊을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안호의 우정은 서로간의 깊은 인연을 알 수 있다.



박흥춘(동아사 차문화연구소장)

한편 초의스님이 불국사에서 간 내력은 이렇다.

“사회 이끌 불교 인재 1천 명 양성해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상임대표 서강대 박광서 교수

10월 16일 햇살은 따갑고 하늘은 맑은 가을날 서강대 캠퍼스를 찾았다. 서강대 박광서 교수를 만나기 위해 서서였다. 참여불교 재가연대, 우리는 선우, 생명나눔 실천본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불교생명윤리학회 등 그는 불교 재가 단체의 밑그림을 그리고 이끌어온 대표 인사다. 그의 이런 활동 뒤에는 불교 가르침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이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가 반영돼 있었다.

기독교 공격 두려움 없다

“저는 10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불자라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한국에 돌아와서는 불자라 산다는 게 불편하다는 것을 알았죠. 종교자유정책 연구소는 기독교를 비판하고자 만들어진 단체가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특정 종교의 편파적 행위를 간제하자는 데 있지요. 결국 종자원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서강대 연구실에서 만난 박광서 교수는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004년부터 종교자유정책 연구소 공동대표를 맡아왔던 그는 일련의 활동들에 대해 최근 기독교계 일간지 국민일보에게 공격을 받았다. “예측 가능했던 문제입니다. 사랑의 교회 주민 소송문제는 서초구민과 구의원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해결점을 찾고 있지만 종자원이 꾸준히 주관했던 문제이니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를 불교단체라 해도 부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종자원을 구성하는 다수가 불교인이라는 것도 맞죠. 하지만 종자원이 목표로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종교 문제를 사회 이슈화시키고 이를 바로잡아 가는데 있습니다”라고 전한다.

국민인권 보호 위해 ‘종자원’ 설립 종교문제 이슈화시켜 바로잡아야 한국은 기독교가 권력화 되어 있어

박 교수가 종자원을 만든 배경은 2004년 대광고 강 의서관 사건의 충격 때문이다. 기독교 사학에서 비인간적이라고 있는 예배 강요 등에 대해 한 학생이 이를 바로잡고 나선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박 교수에게도 큰 전환점을 마련해주었다.

“기독교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특정 종교를 강요 당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지요. 대광고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학교 입원이 될 수 없다는 학칙이 있었어요. 이걸 반대한 기독교 학교만을 얘기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하는 이유로 이런 피해를 입는 것은 부당한 일이지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런 부당한 사례가 대부분 기독교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나라의 종교에 관련한 비정상적인 나라입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죠”

박 교수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종교 편향이 우리 정치사와 무관하지 않으며 가장 큰 배경에는 건국과 6.25 전쟁을 거치며 기독교가 권력화 된 데에 있다고 말한다. “한국 기독교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승만 대통령을 위시한 건국 세력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남하한 평양의 기독교 세력의 흡수죠. 유지나 지식인들이 사회 지도층을 형성하면서 기독교는 권력화 되었습니”

이후 기독교 사학이 만들어지고 기독교 이념을 가진 사회 지도층을 양산함으로써 기독교는 우리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이 되었다. “신도수로는 기독교와 불교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중 사학 리더만 놓고 본다면 기독교가 불교의 3.5 배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처럼 불교가 내부 안에서 티격태격하고 있을 때 기교는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 인재를 키워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 인이 아니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다종교 사회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종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말한다. “우리 헌법 20조에 명기된 바와 같이 종교의 자유는 어떠한



박 교수는 종교자유정책연구소 설립 한국 사회 종교 자유의 문제를 이슈화 시키고 이를 바로잡아 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종자원이 주최한 종교서설투표쇼 현상조사 심판청구 관련 기자회견.



사진 왼쪽은 경기도 시절 불교 학생회 롬바니 활동 정원으로 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박광서 교수. 사진 오른쪽은 2005년 인도 노디푸르에서 개최된 참여불교 세계대회 참가 장면.



박광서 교수는 ... 박광서 교수는 1949년 생으로 경기도 서울대 물리학과를 거쳐 미국 Brown Univ. 물리학과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MIT 화학과 연구원을 역임했다. 이후 서강대 자연과학대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 교수불자연합회 이사, (사)우리는선우 이사장, (사)생명나눔실천운동본부 이사, 고국철도 경주도심통과 백지화 위원회 위원,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달마리라마 방한준비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등을 거쳐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 대표, 불교생명윤리학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고 있다. 만해사(선유단체사), 제16회 불이상, 흥법대상, 제1회 대원상 등을 수상했다.

운동단체의 성격에 따르면 재가 불교는 새로운 전기 불교의 성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불교는 너무 자기 안에 갇혀 기웁니다. “재가연대가 잠깐 될 당시인 08년만 해도 종교인 과세는 스님들을 전혀 설득시킬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문제가 불교계 내부에서 공론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를 꾸준히 제기해왔던 재가연대의 활동도 있었고 도박사태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스님들도 공평의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불교도 스스로 개혁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불교계 대표 단체 중 하나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탄생에도 박 교수의 역할은 컸다. “미국에서 돌아오면 시 불교에도 이런 단체가 설립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도법 스님 등 여러 스님들을 만나며 조언을 구했어요. 이후 94년 범방 스님을 모시고 생명나눔실천본부 운동을 설립했어요. 하지만 일찍부터 꾸준히 설립의 중요성을 제기해왔지만 기독교 사학의장기중흥운동본부만 먼저 생겨났고 현재 그 규모 면에서도 10배가 넘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합니다”

인재불사가 불교 발전의 지름길 그는 스님들이 불교 안에서 평가되는 수행 깨달음 이런 문제에 벗어나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한다. “깨달음이냐 수행이냐라는 것도 사회적으로 증명이 받아야 합니다. 특정한 실리 상태에서 깨달았다는 것은 불교계 안에서는 통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종교 사회인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개인 자신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해야하고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우리 사회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님들이 종교 불평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회를 감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스님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이를 해결하기 보다는 그냥 바깥을 메고 떠나 버립니다. 저는 스님들이 사

전법일기

우지 못할 법회이야기

산중의 법회에 출가하여 몇 년을 산중에서만 지내다가 89년 초 대전 시내의 포교당에 나가서 살게 되었다. 도시에 가서 살기 싫다고 사랑과 반대의 뜻을 보였지만 은사스님을 모셔와 하고, 지금껏 새로운 변화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랑의 설득을 못 잊어고 결국 따라 나치게 된 것이다. 대전시 동구 천동 심광사. 도시에 와서 살게 된 사랑의 아픔이었다. 번두리 주력가에 자리 잡은 심광사는 전법중진 불사가 중단되어 있고, 도량이 정비되지 않아 지지분하고 실한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종단 정화의 한 축으로 중요한 활동을 하신 대의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으로 한 때 대전불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 유서 깊은 도량이기도 했다.

도착하는 날부터 은사스님께서는 승복을 걷어 불교고 술선하여 연장을 들고 도량청소와 정비를 시작하셨다. 가끔 사찰 안팎에서 청소년법회를 비난하고 일도 방금 못한 채 고된 노력을 시작해야 했다. 그렇게 한 달 여, 암 없는 울력 끝에 대략 도량청소와 정리가 끝나자 기도와 포교의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초하루 법회를 비롯한 사중법회는 은사스님께서 서시고, 중요연불과 기도는 사랑이 맡고, 중학 생 법회는 사랑이 맡고, 어린이와 고등학생법회, 대학생법회 그리고 외부에서 청하는 법회는 내가 맡기로 했다. 계속된 울력에 워낙 시달린 터라 차는 따듯하게 아이들을 풀어주시며 법회를 격려해 주시고 하셨다. 법회가 활성화 되면서 비로소 시내의 포교당에서 생활하는 보람과 기쁨을 알기 시작했다.

스님, 언니 오빠가 뽀뽀해요



그림 · 박구원

법당 뒤 중학생 뽀뽀사건 아이들 말쑥은 당연한 일 그대는 불안하고 어려웠다

“요즘 청소년들 참 재미있어요”라는 말을 들을 때면 법당이 담판한다. “하하, 20여 년 전에도 아이들이 법당 뒤에서 뽀뽀하고 그랬어요. 그 시기에는 예나지금이나 다 뭐야 하는 병이겠지요.” 무슨 까닭인지 도심의 포교당에도 법회를 지키지 못한 현실이 가슴 아프다.

하지만 법회가 활성화 되면서 문제도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특히 중학생법회에 오는 아이들이 자주 문제를 만들곤 했다. 어느 일요일 어린이 법회 아이 하나가 와서 이르는 것이었다. “스님, 저기 법당 뒤에서 언니 오빠가 뽀뽀해요?” “뽀뽀하고?” “뽀뽀한다고요” 순간 머리가 멍해지는 순간이었다.

한결같은 현장에 가보니 몇몇 중학생들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시침을 때고 있었다. 이후 그곳은 학생들의 금지구역이 되었고, 아이들의 지도와 교육에 더 세심하게 마음을 써야만 했다. 때때로 아이들이 절에서 법회를 마치고 간지 한참이 지났는데 절에 오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확인해보면 신체 지도도사들이 아이들과 본심장에 가까이 노느라고 귀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법당이 활성화 될수록 아이들에서 문제는 자주 늘어나고 점점 불안함이 커지고 어려움이 많아졌다. 가끔 사찰 안팎에서 청소년법회를 비난하고 일도 방금 못한 채 고된 노력을 시작해야 했다. 그렇게 한 달 여, 암 없는 울력 끝에 대략 도량청소와 정리가 끝나자 기도와 포교의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초하루 법회를 비롯한 사중법회는 은사스님께서 서시고, 중요연불과 기도는 사랑이 맡고, 중학 생 법회는 사랑이 맡고, 어린이와 고등학생법회, 대학생법회 그리고 외부에서 청하는 법회는 내가 맡기로 했다. 계속된 울력에 워낙 시달린 터라 차는 따듯하게 아이들을 풀어주시며 법회를 격려해 주시고 하셨다. 법회가 활성화 되면서 비로소 시내의 포교당에서 생활하는 보람과 기쁨을 알기 시작했다.



주경 스님(서산부사주지)

34년 자연산 상황버섯. 스님이 직접 해발 500고지 이상의 고원에서 조선풀나무에 착생시켜 재배한 자연산 상황버섯을 인연있는 불자님께 보급하고자 합니다. 증남 천안시 입장면 모전리 202번지 (사)부처님 나라 문의 : 041)583-1110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쭈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귀사문석(貴蛇炆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 426호, 품목허가 제 09-651입니다. 인간의 기본 체온은 36.5℃인데 1℃ 떨어지면 체온(冷氣)이 되어 면역력이 30%↓ 된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숏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 두한족열(頭寒足熱) : 머리는 차갑게(귀사문석 베개) 발은 따뜻하게(귀사문석 온열매트) ※ 낮에는 의자나 쇼파에, 밤에는 침대에 위 위에 놓고 하루 24시간 켜놓음! 방안의 숏가마 쥘질방(전자파 차단)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줍니다. 건강한 사람의 평균 체온은 섭씨 36.5℃이다. 그런데 1℃만 내리기도 면역력이 30% 떨어진다. 즉 냉증 또는 저체온이 되면, 자율신경총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면역능을 담당하는 펩티드 수가 줄어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특히 체온이 35℃로 내려가면 암세포가 증가할 수 있다. 우리 신체는 생체 온도 37℃-37.5℃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데 면역력 덕분에 약에 걸리지 않는 다) 냉증(冷症) 즉 저체온이 되면, 그 증상으로 손과 발이 저리고 무릎이 시리다. 그리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찬 음식을 먹으면 설사로 고생도 한다. 또한 당분, 지방 등 영양소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 젊은 지구를 세우려면 늘 수 있는 92%의 혈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착할수록 양기는 현상은 저체온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세포 안에 충분한 열이 전달되도록 하면 적절한 영양분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원적외선을 이용해 신체 내부까지 골고루 열을 가하면 즉시 열이 전달된 적 혈구들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다. ※ 제 조 원 : (주)국민메탈 / 경기 양주시 율정동 115번지 ※ 문의전화 : 02)2681-8122 선재생활건강(주) ※ 판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광명시 광명7동 305-50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